

ARS VERITATIS

자유 과학의 선언

Per scientiam — ad lucem

2025

I. 서문

위대한 과업의 첫 단계는 이미 끝났다.

세계는 부패했고, 과학은 그 의미를 잃었으며,

진리는 상품이 되었고,

사유는 이익의 종이 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다림은 죄에 가까워진다.

곧 우리는,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가를 더 이상 치를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제는 이성이 부활하고, 빛이 깨어날 때이다.

우주를 탐구하는 자들이여, 모여라.

영광을 위해서도, 권력을 위해서도 아니라—

한때 인류를 어둠에서 구했던 그 빛을 위해.

II. Ars Veritatis

Ars Veritatis (아르스 베리타티스) —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는 기술이다.

자유 과학이란, 두려움과 이익, 지배로부터 해방된 과학이다.

그것은 제국에도, 기업에도, 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이성 그 자체에 속한다.

III. 자유 과학의 원칙

1. 지식은 그것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의 것이다.
2. 연구의 자유.
3. 생명에 대한 책임.

과학은 이익을 위해 파괴해서는 안 된다.

모든 실험은 자발적인 동의, 인간성, 생명에 대한 존중을 필요로 한다.

4. 개방과 연대.

사유는 자유로워야 하며, 대화는 성실해야 한다.

5. 진리는 이데올로기보다 우월하다.

과학은 권력의 하인이 아니다.

6. 목적 — 각성.

지식은 영혼을 높이는 것이지, 잠재우는 것이 아니다.

IV. Ars Veritatis의 목표

1. 정치와 상업의 틀을 넘어, 연구자와 사상가를 연결하는 자유 과학의 세계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2. 우주를 이해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지식으로 향하는 열린 길을 제공한다.
3. 폭력과 착취를 배제한 인도적 과학을 지지한다.
4. 국경과 사상을 넘어선 지식의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촉진한다.
5. 진리와 이성에 대한 존중을 회복하여 사회를 깨운다.

V. 사회를 향한 호소

나는 오늘 말한다.

강단에서도, 연구실에서도 아니라—

사유가 태어나는 고요의 중심에서.

우리는 시대의 절벽 위에 서 있다.

낡은 구조물은 스스로의 거짓의 무게로 무너지고 있다.

기술은 발전하지만, 정신은 여전히 잠들어 있다.

인류는 고개를 숙였다—

화면, 숫자, 통계 속으로—

그리고 별을 올려다보는 법을 잊었다.

모든 것이 가능했던 세상을 상상하라.

이 말이 상기시킬 것이다—

그것을 되살릴 자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이성, 우리의 연대.

그 부름을 느끼는 자는 이미 Ars Veritatis의 일원이다.

서약도, 모임도 필요 없다.

필요한 것은 오직 탐구하고, 잊혀진 어둠 속으로 빛을 가져가려는 의지뿐이다.

VI. 결말

세계는 아직 완전히 잃지 않았다.

그것은 사유를 두려워하지 않는 새로운 건축가들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진리로 향하는 길이 험하다면, 그 길만은 순수하게 하라.

지식을 다시 사슬이 아닌 불꽃으로 만들라.

인간을 다시 소비자가 아닌 탐구자로 되돌려라.

이성을 재로부터 일으켜 세우고,

그 사명을 기억하라—탐구하고, 이해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무언가를 보았다면 — 말하라.

Albedo — Ars Veritatis